

멀티미디어 시대와 대학언론의 역할

김 학 수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멀티미디어 시대의 특징

알 다시피 싱가포르 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서비스가 좋은 항공회사이다. 그런 만큼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해본 사람은 통신혁명이 어디에 와있는가를 쉽게 실감할 수 있다. 3등석 자리에도 소위 멀티미디어 장치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만 있으면 누구나 자기 좌석에서 즉시 세계 어디에든 전화를 걸 수 있고, 그리고 무료로 위성방송 청취, 자기 취향에 맞는 비디오 관람과 전자오락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상황

에서 10시간 이상 걸리는 비행거리에도 공백없이 업무를 협의할 수 있으며, 오히려 매우 짧은 시간인 것처럼 정보와 오락에 파묻힐 수 있다.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비행시간 동안에 컴퓨터통신을 아직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 세계 국제공항에는 각 항공사마다 소위 1등석 내지 2등석 손님들을 위해서 귀빈실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곳에 전화, 팩스는 물론 컴퓨터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컴퓨터통신을 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지는 오래이다. 그러나 이제는 꼭 그런 귀빈 대우를 못 받아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일반승객들을 위해서 전자통신 코너가

큰 공항에는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마치 공항내의 선물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사는 것처럼, 전자통신가게에 들어가 필요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컴퓨터통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제 하늘 아래는 물론 하늘 위에서조차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것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드디어 인간이 늘 한계로 느끼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무한정 무너뜨리고 있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이다.

뉴스 마감시간을 갖고 있는 전통적인 신문과 방송은 이제 점점 더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면 마감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즉, 마감시간 없는 정보매체가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미국의 CNN, 영국의 Star TV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24시간 내내 온갖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다.

멀티미디어는 흔히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의 개발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기술개발의 의미를 뛰어넘고 있다. 예컨대, 비단 커뮤니케이션의 시·공간 초월뿐만 아니라 미디어종(種)의 분할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쉬운 예로 신문과 방송의 구별이 필요없게 되고, 전화와 팩스의 구별은 더더구나 의미가 없어진다. 음성과 문자의 호환, 동영상(動映像)과 정지화상(靜止畫像)의 호환, 그리고 동시성(同時性)과 저장성(貯藏性)의 호환이 자유자재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 마디로 모든 매체 사이의 호환성(互換性)이 극대화되는 것이 바로 멀티미디어 시대이다.

이런 멀티미디어 시대에 정보유통은 간헐

적이 아니라 항시적이다.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늘 정보가 흐르게 된다. 따라서 정보생산도 정보소비도 그만큼 대폭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사회 전체가 이런 양상으로 변하는 마당에 대학이라고 특별한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다. 대학당국은 학생, 학부모, 동창회원,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련 정보를 생산하여 유통시킬 것이며, 정보소비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보소비와 함께 필요한 피드백을 전달할 것이다. 대학이 소비자의 정보욕구를 채우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된다. 이미 각 대학마다 컴퓨터통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날이 대학의 소식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정보소비자의 질의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도 컴퓨터를 통해서 학기등록, 숙제 제출, 교수와의 상담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학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매체간의 구별을 넘어서서 보다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멀티미디어 시대이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대학의 언론매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어떤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비단 전통적인 대학신문, 대학방송이 억지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소비자에게 보다 유익한 고유 기능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2. 대학언론의 역할

일반적으로 언론은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첫번째는 워니워니 해도 저널리즘 기능이다. 즉, 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문

제점을 파헤치는 기능이다. 이것을 위해서 언론은 어떤 종류의 취재원이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점 중심의 뉴스를 찾아내는 것이다. 엄격하게 말해서 언론은 돈을 벌기 위해 사회적 문제점들을 팔아먹고 사는 기업이다. 따라서 사익추구를 위해서 저널리즘 기능이 탄생하였지, 그 반대는 결코 아니다. 사회적 감시견 역할의 저널리즘 기능이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두번째는 정보욕구를 채워주는 기능이다. 언론은 정보소비자가 필요로 한다고 믿어지는 사실 중심의 정보들을 전달해줌으로써 언론상품을 구매하게 만든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황 중심의 단순 정보들은 대부분 정보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기예보, 시장의 상품값, 그리고 문화 관련 소식들은 가장 대표적인 단순정보들이라고 볼 수 있다.

세번째는 오락제공 기능이다. 언론은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만 접촉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 자체가 상당부분 오락거리이다. 이런 오락거리의 대표적인 것은 방송 프로그램들이다. 드라마와 쇼를 관람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 또는 정보추구를 위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전히 방송매체가 제공하는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접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오락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오락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기이한 뉴스를 읽는 것이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그 뉴스 속에 담긴 기이한 내용을 오락적으로 즐기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들 일반 언론의 세 가지 기능들이 대학 언론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서 대학언론도 대학 커뮤니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저널리즘 기능, 대학인의 정보욕구를 채워주는 기능, 그리고 대학인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반 언론과 다르게 대학언론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네번째 기능은 아무래도 교육적 훈련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은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고, 그런 만큼 대학언론은 언론활동을 교육시키는 훈련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물리학과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적 내용을 교수의 지도 아래 실험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보다 크게 높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대학언론 활동을 통해서 교수의 지도 아래 이론과 실재를 연결하는 교육훈련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이 교육마당인 한, 대학 내의 모든 조직 활동이 교육활동과 결코 동떨어질 수 없다.

그렇다면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학언론은 위의 네 가지 기능들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것이 대학인들에게 가장 유용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대학언론의 방향이 될 것이다.

3. 멀티미디어 시대의 대학언론의 방향

앞에서 말하였지만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시·공간과 미디어 종류를 초월해서 정보유통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곧 정보소비자의 정보욕구를 채워주는 정보제공 기능이 가장 크게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대학이 설정한 컴퓨터통신의 홈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대학인은 무엇이든지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 내지 물어볼 수 있다. 따라서 사실 중심의 단순정보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는 전통적인 대학언론의 기능은 사실상 필요없게 될 것이다. 멀티미디어가 그런 대학언론의 두번째 기능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멀티미디어 시대의 정보유통은 단순 정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자오락이 범람하는 현상에서 멀티미디어가 오락욕구를 얼마나 잘 채워주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실례로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정보추구의 대상이 실제 생활과 연관된 것보다 오락거리에 관한 것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산업은 오락 중심으로 더 많이 발전하는 법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대학언론이 신문, 방송을 모두 포함해서 멀티미디어가 제공하는 오락 기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언론의 세번째 기능인 오락제공도 멀티미디어에 의해서 대체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은 멀티미디어가 대학언론의 저널리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가이다. 물론 그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정보소비자가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공론화되는 저널리즘적 마당이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관련 멀티미디어의 운영주체가 대학당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때,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저널리즘 시각을 보여주기보다 단순정보의 전달 내지 정보생산자의 홍보에 치중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다면 멀티미디어 시대에도 대학언론의 저널리즘 기능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서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은 멀티미디어가 대학언론의 교육훈련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가이다. 아니다라는 대답이 보다 명확한 것 같다. 교육훈련의 특징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통하여 학습의 완성을 성취해가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멀티미디어처럼 커뮤니케이션의 신속성과 전파성이 큰 매체를 언론학 관련 교육훈련용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의 시행착오를 용납하기 위해서는 매체내용의 제작시간을 길게 가져서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고, 아울러 매체의 전파성이 비교적 좁아서 착오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적게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인 대학언론 매체는 교육훈련용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대학언론 매체가 전형적으로 대학 커뮤니티에 대한 저널리즘 기능과 학생들의 교육훈련 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대학언론에 종사하는 학생들은 철저하게 언론활동의 실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실습의 장은 물론 이론과 실무로 무장한 전문언론인 내지 언론학자의 엄격한 지도를 받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대학언론의 질이 보장되며, 나아가 전국적인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의 일반 언론에서도 대학언론에 종사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채용시에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것은 그만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양질의 경험을 쌓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런 만큼 마치 경력있는 언론인과 비슷한 취급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학언론이 대학 내·외적으로 모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

는 이유는 바로 철저한 지도 아래 교육훈련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4. 맺음말

우리는 앞에서 멀티미디어 시대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개발은 시·공간과 미디어 구분을 초월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는 것도 쉽게 간파할 수 있었다. 그 정보욕구 속에는 무엇보다 오락에 대한 욕구도 포함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의 발달이 우선적으로 오락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들은 아마도 정보제공과 오락제공 기능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글에서 또한 대학언론의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크게 보아 대학커뮤니티의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저널리즘 기능, 사실 중심의 단순정보의 전달을 통해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 오락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훈련 마당으로서의 기능 등이 대표적인 대학언론의 기능들이다. 멀티미디어가 상대적으로 정보제공 및 오락제공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면, 멀티미디어 시

대에 전통적인 대학언론은 그 두 기능들에 대한 의미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에 전통적인 대학언론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것은 바로 대학 커뮤니티에 대한 저널리즘 기능을 나름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대학언론이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는 강력한 교육훈련의 기능이다. 특히 후자의 기능은 오히려 멀티미디어 시대가 진척될수록 대학에서 더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가 특징인 교육훈련은 반드시 많은 제작시간과 적은 영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숙고해야 될 점은 어떻게 하면 전통적인 대학언론을 훌륭한 교육훈련의 마당으로 가꿀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철저한 지도와 실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전통적인 대학언론이 21세기에 대학 커뮤니티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진다. ■

김학수/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신문학과에서 석사,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한국 의회정치와 언론역할 연구』, 『한국 과학기술의 대중화정책 연구』, 『정보사회의 기업 문화』 등이 있다.